

2018 식품산업 중장기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2017년 식품산업은 출하액이 육가공업과 비알콜음료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에는 사드 배치 갈등에 따른 대중국 식품사업과 수출 부진이 식품산업의 가장 큰 이슈였으나,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식품산업 출하액은 전년 대비 3%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특히 가정간편식(HMR), 소스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성장이 예상된다. HMR은 업종 간 경계를 낮추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부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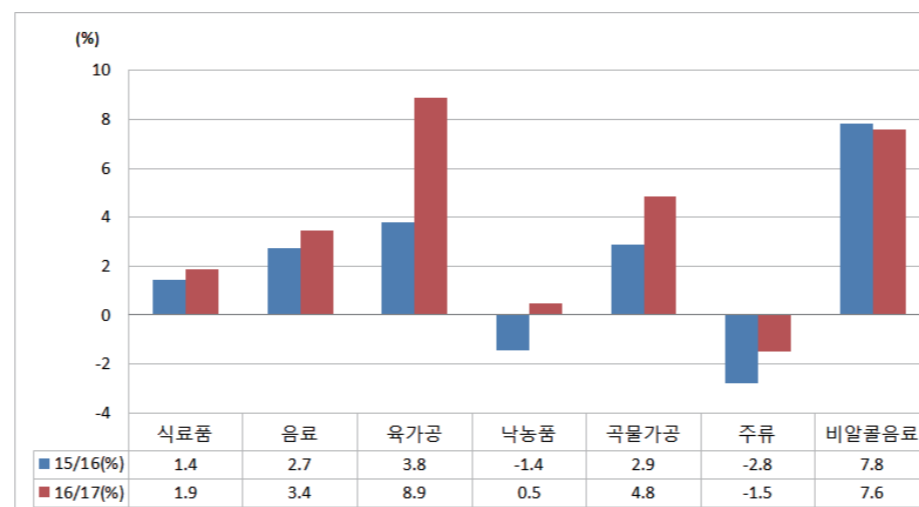
연구 배경 및 방법

- 식품산업은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체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하고, 민간에 의한 정보 생산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공공에 의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식품산업에 대한 기본적 통계는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1~2년이 지난 후에야 이용할 수 있어 시의성이 떨어짐. 관련 전문가(기관)에 의해 식품시장의 경쟁 구조, 기업의 고용·투자·연구개발 등의 활동, 그리고 식품산업의 성과나 기업경영 성과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 분석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거시 환경변화에 따른 식품제조업 부문 영향을 검토하고자 함.
- 식품산업 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식품제조업 및 음료업 부문 전망을 추정하고, 식품산업 주요 업종별 동향과 이슈 및 시장을 전망하고자 함.

2017년 식품산업 동향

-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과거 3~5년 간 계속 증가하였으며, 노동생산성은 최근 1인당 3억 6천만 원 수준에서 정체 상태임.
- 2017년 식품산업 제조업 출하량은 전년 대비 식료품이 1.9%, 음료가 3.5% 증가하며, 육가공업 과 비알콜음료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낙농제품(유가공품)과 주류는 출하가 각각 0.5%, -1.5%로 정체되거나 감소함.

주요 업종별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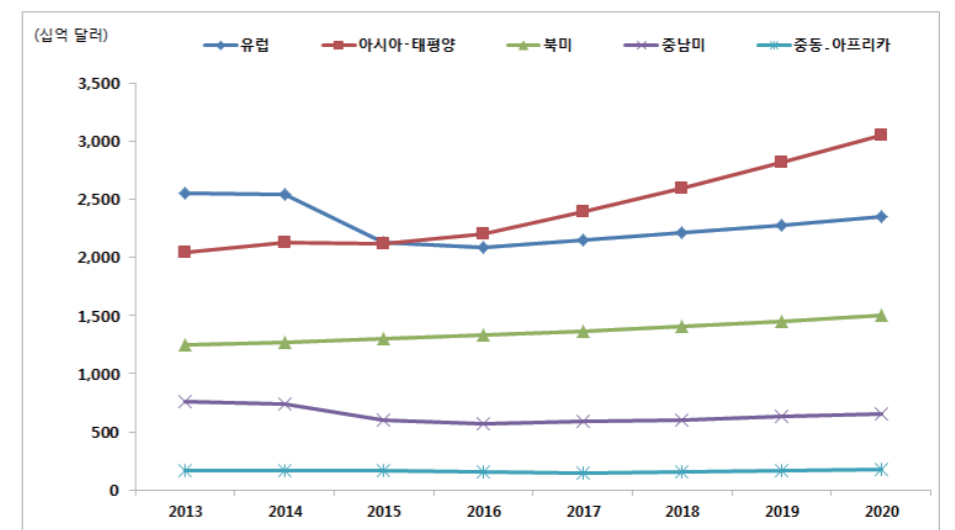


- 2017년 상반기 식품산업 생산자물가가 전년 대비 1.4% 상승하였으며, 특히 육가공품과 알콜음료(주류) 물가가 크게 상승함.
- 식품산업 제조업 출하액은 2016년에 전년보다 2.9% 증가하고, 2017년에는 전년보다 4.0% 증가하여 성장세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가공식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하고,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하여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됨.

2018년도 식품산업 여건 전망

- 인구 사회적 요인: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출산이 줄어 19세 미만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에 총 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내년에 30%에 근접할 전망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령친화식품과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환율: 원화 환율(가치)은 대체로 엔화 대비 소폭 하락(강보합), 위안화 대비 소폭 상승(약보합)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원자재(국제곡물): 세계 곡물 생산은 작년보다 감소했으나 평년보다는 양호함.
- 국내 경기: 경제성장은 둔화되나 소비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 해외 시장: 선진국 경제성장은 조금 둔화되겠지만, 세계 식품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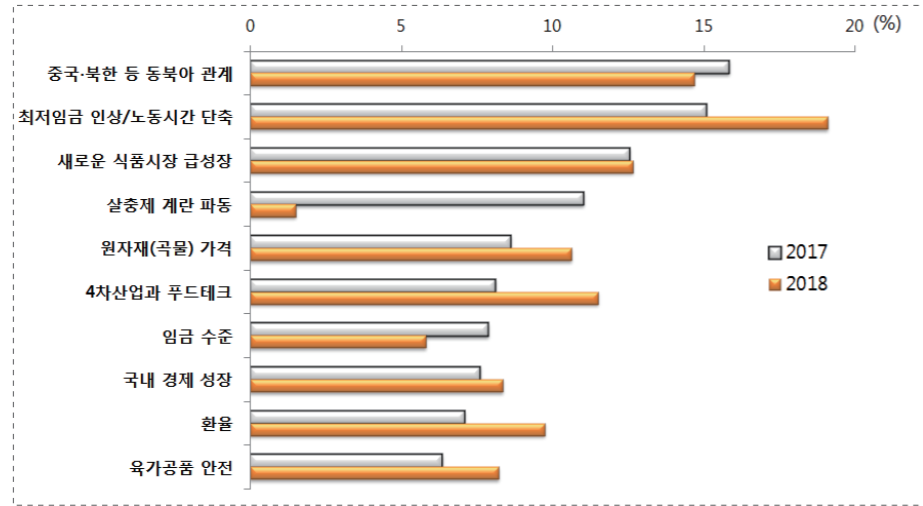
세계 지역별 식품시장 규모 전망



식품산업 주요 이슈 및 출하 전망

- 신문 기사에 대한 주제어 검색과 업계·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2017~18년의 주요 이슈를 선정한 결과, 중국·북한 등 동북아 관계,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새로운 식품시장 급성장이 올해와 내년 3대 이슈로 공통적으로 꼽힘. 살충제 계란 파동은 올해 큰 이슈가 되었으나, 내년에는 4차산업과 푸드테크, 원자재(곡물) 가격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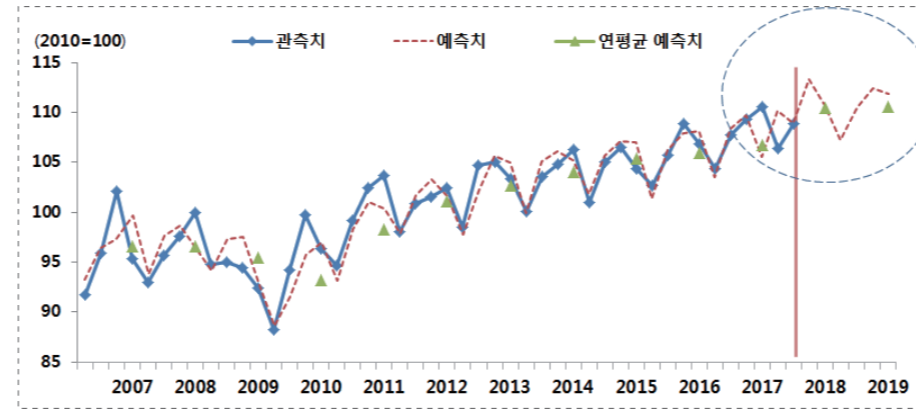
올해와 내년 식품산업 관련 10대 이슈



- 사드 배치 보복에 따른 중국 진출 유통업체의 애로와 철수 추진
 - 중국에서 롯데 상품 등에 대한 불매 운동 확산과 영업 정지 등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진출 기업이 철수를 추진함.
 -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대중국 수출이 회복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평균임금 수준, 고용(구조), 기업의 경영 부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여부 등이 관심사
 - 최저임금 수준이 작년 6,030원에서 금년 6,470원으로 올랐고, 내년에는 금년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예고됨.
 - 영세 사업장이 많고, 최저임금 이하 수급자 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계절적 ARIMA 모형을 추정하고, 그 계수를 이용하여 식품제조업의 2017~18년 분기 및 연간 출하 전망치를 산출함.
 - 계절적 ARIMA 모형을 추정하고, 그 계수를 이용하여 식품제조업의 2017~18년 분기 및 연간 출하 전망치를 산출함.
 - 음료 제조업의 출하지수는 2017년 120.9로 전년 대비 3.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18년에는 2017년 전망치 대비 2.56% 증가한 124.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 식료품(음료품) 생산자 물가지수(2010=100) 역시 완만히 증가하여 2016년 116.5(114.4)에서 2017년 118.6(116.3)로 1.80%(1.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18년에는 120.6(118.0)으로 2017년 전망치 대비 1.69%(1.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식료품(음료) 제조업의 출하액은 2016년 대비 3.20%(4.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에는 2017년 전망치 대비 2.6%(4.1%) 증가한 79.6조 원(1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17년 및 2018년 식품산업 출하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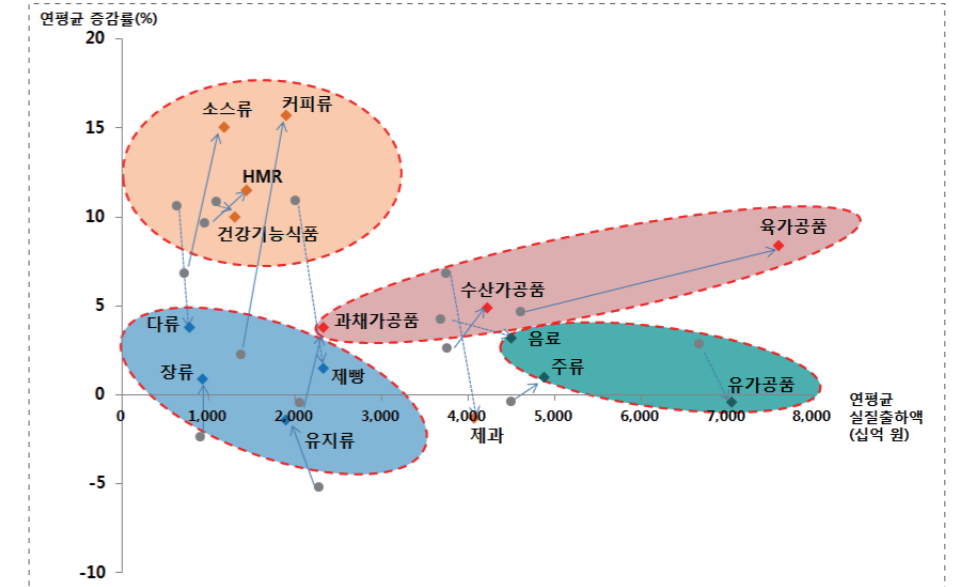


업종 유형화

- 식품산업의 개별 업종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 규모의 변화와 성장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동태적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을 도출하였음.
 - 분석기간은 2009~12년을 기준 기간으로 하고, 2013~16년을 비교 기간으로 설정함.
 - 식품산업의 업종별 시장 규모는 실질 출하액 평균을 비교하였고, 성장 수준은 전년 대비 출하증감률을 계측하여 비교함.

- 중소규모-고성장 유형(신규시장): 소스류, 간편식(HMR), 건강기능식품
- 중대규모-중성장 유형(주류시장): 육가공품, 수산가공품
- 대규모-저성장 유형(포화시장): 유가공품, 주류
- 중소규모-저성장 유형(축소시장): 장류, 유지류

식품산업의 시장 규모와 성장 수준에 따른 업종 유형화



주요 업종별 이슈와 전망

- 육가공업체의 주요 원료인 돼지고기의 수급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라 원료육의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어 가격의 변동성도 매우 높은 편임. 또한 햄, 소시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제기과 사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로 소비기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가공 제품의 생산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EU나 일본처럼 육가공품에 대해서도 품질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원유공급 과잉사태에 따라 원유 감산정책으로 국산 원유의 안정적 공급과 유제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유제품 수입, 출산율 저하와 대체음료 시장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 유제품 시장의 확대 장애요인 등이 유가공업체가 직면한 주요한 이슈들이며, 전반적인 국내 유제품 산업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제과·제빵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재 지정되고 계란 가격이 폭등하여 국내 경기가 어둡지만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계속된 글로벌 진출과 샌드위치 등 식사대용 빵 수요 증가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
- 맛벌이 가구 및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HMR 식품 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간편성만을 추구하는 HMR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이 다양화 되고 고급화 되는 추세임. 보존료 무첨가 제품 출시, HMR 제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 홍보, 공장 견학 등의 노력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HMR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됨.
- 주류산업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이 많아지고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위스키 등 증류식 소주와 같은 알코올이 높은 주류의 소비가 감소하고 과일맛 소주, 저도 맥주 등 저도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소스·장류산업은 1인 가구 수 증가로 소용량 포장의 소스류나 장류 제품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에 부응하는 국산 원재료 사용 장류나 캠핑용 혼합장 생산이 증대하겠으며, 외식과 일본식 주점의 증가로 간장 수입의 증가가 전망됨.
- 음료산업은 다양한 음료 제품 개발 및 대중국 수출시장 재공략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 관심 증가로 저칼로리, 저당, 고영양의 새로운 음료 제품 개발 요구가 확대되겠으며, 다이어트 등 건강과 미용에 대응한 다양한 기능성 음료의 출시가 전망됨.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제품군이 다양화되면서 연평균 13% 이상 성장세로 시장이 확대되고,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정책과 지원확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저자정보

이용선 선임연구위원(061-820-2320), yslee@krei.re.kr

박기환 선임연구위원(061-820-2331), kihwan@krei.re.kr

최종우 부연구위원(061-820-2288), peacejchoi@krei.re.kr

김다혜 연구원(061-820-2322), dahk@krei.re.kr